

2020 국별 진출전략

우크라이나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와 신정부 출범	4
나. IMF 체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안 요소 상존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가. 정치 환경	7
나. 경제 환경	8
다. 산업 환경	9
라. 정책 환경	12
2. 시장 분석	14
가. 시장 특성	14
나. 교역	16
다. 투자	16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0
가. 교역	20
나. 투자	21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2
III. 진출전략	23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3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4
3. 한-우크라이나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8
4. 진출 시 유의사항	32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3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4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35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35
부 록	
對우크라이나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36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우크라이나 경제 3%대의 성장률 달성 및 금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및 동부 내전 등으로 크게 악화된 경제상황은 2016년부터 지속적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크라이나 주요 경제지표와 대내외 전망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2020년 3%대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IMF(3.0%), World Bank(3.4%), JP Morgan(3.8%) 등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45.0	44.8	44.6	44.4	44.3	44.2	-
명목 GDP	십억 달러	133.3	90.9	93.4	112.1	132.8	147.8	154.5
1인당 명목GDP	달러	2,963	2,028.4	2,092.5	2,525.3	3,007.2	3.0	2.9
실질성장률	%	-6.6	-9.8	2.4	2.5	3.1	3	2.9
실업률	%	9.7	9.5	9.7	9.9	8.8	8.7	8.3
소비자물가상승률	%	12.2	48.7	13.9	45.6	11.6	8.6	7.7
재정수지(GDP대비)	%	-4.9	-2.3	-2.9	-4.9	-5.8	-	-
총수출	백만 달러	53,912	38,126	36,360	43,427	47,372	45	47.3
(對韓 수출)	"	758	661	472	539	386	231	-
총수입	"	54.380	37,515	39,249	49,438	56,837	61.1	63.5
(對韓 수입)	"	338	194	222	258	341	231	-
무역수지	백만 달러	-7.1	-3.5	-6.9	-9.4	-11.8	-	-
경상수지	"	-4.6	1.6	-1.3	-2.4	-3.1	-3.2	-3.1
환율(연평균)	현지화/US\$	11.9	21.9	25.5	26.6	26.5	26.88	28.43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67.0	64.5	63.1	63.4	62.9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537	383	321	312	316	-	-

자료 : IHS, EIU, 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통계청

주 : 對韓 수출/對韓 수입은 한국무역협회 2019년 8월까지 통계자료
2019년, 2020년 예측치는 EIU, 우크라이나 통계청 자료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부터 친서방 진영과 친러시아 진영 간 첨예한 대립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정권 성향에 따라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경제,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오고 있음
- 2019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승리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존의 친서방 정책 노선은 유지하되 포로셴코 전 대통령과는 달리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 돈바스 지역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후 행보 주시

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와 신정부 출범



(대선) 2019년 4월, 방송인 출신 정치 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73%의 압도적 득표율로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

- 우크라이나 전역에 만연한 부정부패 기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와 불신이 젤렌스키 대통령 당선에 주요 요인으로 부각
 - 경기침체 장기화, 부정부패 문제와 EU 가입 기준 미달 등 기존 정치권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이 현실화되지 않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환멸감을 느끼고 TV 드라마에서 정의로운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젤렌스키에 기대
-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가 혼합된 의원집정부제이며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중임 가능
 -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 지방 주지사, 검찰총장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우크라이나 최고회의(국회)의 신임을 얻어 확정
-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향후 우크라이나의 외교, 경제 정책 등이 어떠한 기조로 흘러갈지 주목
 - 친서방주의 정책 지속 추진,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여부에 관심
 -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 당시 현지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 해결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총선)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 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

- 우크라이나 8대 최고의회(Verkhovna Rada) 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

-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연립정부가 없다는 이유로 제8대 의회 해산과 동시에 기존 내각에 총사퇴를 요청, 우크라이나 헌법재판부소는 합법판결
-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기총선에 대한 대통령령에 서명함에 따라 10월 예정이던 총선은 7월 21일에 치러짐
- 투표 결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민의 일꾼’ 정당이 254석으로 단독 과반석 확보
 -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며,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 정당별 획득 의석 수

정당명	지도자	획득 의석		
		비례대표	지역구	합계
인민의 일꾼	드미트로 라중코우	124	130	254
인생을 위한 야권연단	유리 보이코	37	6	43
전 우크라이나 연합 조국	올리야 티모셴코	24	2	26
유럽연대	페트로 포로셴코	23	2	25
목소리	스바토슬라우 바카르추크	17	3	20
야권전선	예우헤니 무라예우 올렉산드르 빌쿨	0	6	6
전 우크라이나 연합 자유	올레흐 타흐니보크	0	1	1
자조당	안드레이 사도보이	0	1	1
기타 정당	-	0	2	2
무소속	-	0	46	46
총 유효표수		225	*199	424
미 선거 의석			26	
총 합		225	225	450

- 최고의회 의원 225명은 5% 봉쇄 조항의 전국단위 구속 명부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225명은 지역구별 소선거구제 투표로 선출
 - 225개 선거구 중 26개 선거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사태와 친러 반군의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일부 지역의 점령으로 투표 미 진행
- * 실제 의석 수 : 199석

나. IMF 체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안 요소 상존

 **돈바스 분쟁 이후 IMF는 확대신용공여(EFF) 제도를 통해 2015년부터 4년간 총 175억 달러 차관 지원을 승인**

 **총 4차례에 걸쳐 87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지원을 하였으나, 2017년 4월 이후 IMF 측에서 추가 금융 지원 중단**

-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5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민간용 가스 가격 인상, 반부패 개혁 시행(반부패 법원 설치), 우크라이나 재무국 구조조정, 2019년도 균형 재정 예산 확정을 요구
-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부패 법원 설치, 가스 가격 인상 등 국내 민감 사안에 대한 개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IMF가 추가 구제금융 지원 중단
 - － 특히 반부패 법원 설치에 부유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 소지가 있고, 가스 가격 인상은 일반 대중들에게 부담을 지어주어 내년 대선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임
-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정적자 상태 해결을 위해 국고채 발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IMF 측과는 추가 금융 지원 협상 지속 추진

 **2018년 10월, 우크라이나와 IMF는 확대신용공여제도(EFF)를 대기성 차관(SBA)으로 대체하고 향후 14개월간 39억 달러를 추가 지원받기로 합의**

-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재정적자 문제를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기존 IMF의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음
 - － 올해 11월부터 가스 가격을 23.5% 인상함과 동시에 내년에는 추가 40% 인상기로 함
 - － 반부패 개혁, 우크라이나 재무국 구조조정 등 시행 필요

(참고) 확대신용공여제도(EFF)와 대기성 차관(SBA)

- －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는 구조적 국제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IMF 회원국에 중장기적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4~10년에 걸쳐 장기간 지원하는 제도
- － 반면,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은 단기적인 국제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IMF 회원국에 1~2년 단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2014년에 시작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내전으로 인해 혼란기를 겪은 이후 2016년부터 우크라이나 경제는 회복기에 접어들기 시작
- 2016년부터 2~3%대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던 내수 소비 시장이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기 시작, 우크라이나 무역액도 점차 증가 추세
- 그러나 2019년 치러진 대선과 총선으로 집권한 정부의 내각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추후 우크라이나의 대내외 정책 방향의 변화에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정치 환경

친서방주의 정권의 집권과 친서방주의 정책 지속 추진

-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기존의 친서방주의 정책노선은 유지 하되 페트로 포로셴코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돈바스 지역 분쟁 해결 등을 위해 러시아와 대화 의지 표명
 - 취임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대화를 통해 양국이 억류하고 있던 포로를 맞교환 하며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분쟁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도 대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
 - 추후 대화를 통해 양국 간 신뢰 회복 및 다른 사안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따라 양국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변화할 수 있음
 - 직전의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서방주의를 표방하며 러시아에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정치, 경제,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어 왔음
 - 러-우크라이나 간 자유무역협정 폐기, 무역 제재 조치 시행, 영공 폐쇄, 육로 운송 제한 조치 등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
- 또한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2020년 EU 가입을 목표로 각종 법·제도를 EU 표준에 맞추기 위해 추진해온 각종 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을지 관심
 - 우크라이나-EU 연합협정 체결 : 2014년 6월 27일
 - 우크라이나-EU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발효 : 2016년 1월 1일
 - 우크라이나-EU 무비자(단기 사증 면제) 협정 체결 : 2017년 5월 17일

- 우크라이나-EU 무비자(단기 사증 면제) 협정 발효 : 2017년 6월 11일
- 우크라이나-EU 연합협정 최종 발효 : 2017년 9월 1일
- 그러나 아직까지는 EU 내부적 문제와 러시아의 반대 등으로 인해 실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

나. 경제 환경



2016년 우크라이나 경제성장을 플러스로 반전, 경기 회복세 진입

- 동부지역 내전 사태 이후 2016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2.2%로 반등에 성공
- 2019년 우크라이나 경제성장률 3%대 달성 전망, 경제 회복에 따른 무역액 증가 지속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GDP 성장률 2.5%에서 3.0%, 세계은행 GDP 성장률 2.7%에서 3.4%로 상향 전망
 - 2019년 2분기 기준, 우크라이나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14.9% 증가

우크라이나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교역	140,275	108,294	75,636	75,551	92,765	104,209
수 출	63,312	53,913	38,134	36,372	43,300	47,372
수 입	76,963	54,381	37,502	39,179	49,465	56,837
수 지	▲ 13,651	▲ 468	▲ 632	▲ 2,807	▲ 6,165	▼ 9,465

자료 : WTA, KITA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화폐 가치 하락과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 회복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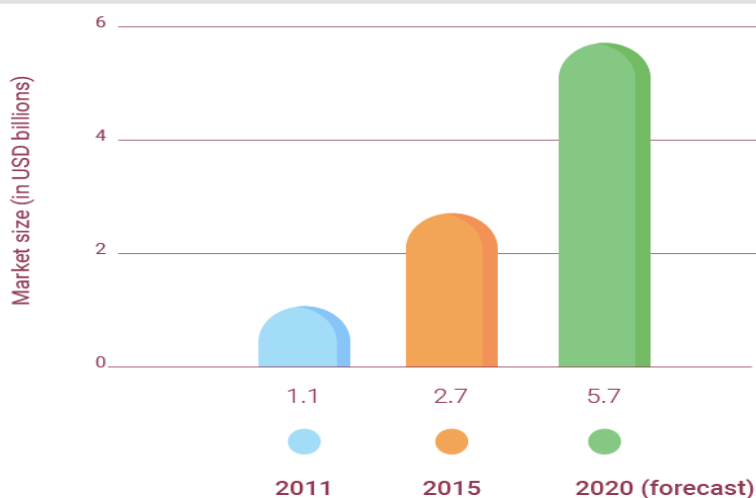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는 2014년 2월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 변경
 - 그리브냐(UAH) 화폐 가치 3배 이상 급락
 - 2014년, 미 1달러 당 8그리브냐에서 2019년 US달러 당 25그리브냐로 3배 이상 폭락
-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 우크라이나 환율 전망도 밝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어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IMF 체제 지속 등으로 인한 경제체질 악화

다. 산업 환경

IT 산업

- 2020년 우크라이나 IT 시장, 시장규모 5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European Business Association(EBA)에 따르면, IT 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 비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음

2020년 우크라이나 IT 시장규모 전망치



Ukrainian IT market growth from 2011 to 2020 (forecast)

자료 : Pwc analysis

- 우수 IT 인력도 18만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IT 서비스 강국으로 아웃소싱 활발
 - 우크라이나 전역에 IT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만 1,600개 이상 위치
 -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수의 IT 인력 보유(월평균 1,600달러 수준)
- 국제아웃소싱협회(IAOP)에서 발표한 ‘2018 글로벌 100대 아웃소싱 기업’에 우크라이나 소재 기업 18개사 포함

2018 글로벌 100대 아웃소싱 기업(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현지기업 : SoftServe, Eleks, Miratech, Sigma Software, N-IX, Softenqi, Program-Ace, Infopulse, Innovecs, Itera, Intellias
- 우크라이나 R&D 센터 보유 해외기업 : EPAM(미국), Luxoft(스위스), Ciklum(덴마크), TEAM International Services(미국), Softjourn(미국), AMC Bridge(미국), Artezio(러시아)

- 대(對)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주문에 힘입어 2017년부터 우크라이나 IT 업계가 호황을 맞기 시작
 - CIS 내에서 잘 알려진 러시아 포털 및 SNS 서비스(Yandex, Mail.ru, V Kontakte 등)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제재대상에 오르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불가
 - 대(對)러시아 사이버 테러 대비 우크라이나 국산 IT 소프트웨어(Anti 바이러스, 회계 프로그램 등) 대한 수요가 늘면서 우크라이나 IT 업계 활황
- 우크라이나 IT 협회는 우크라이나 IT 산업 성장세가 지속되어 2025년까지 IT 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 IT 전문 인력은 2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농업

- 전 국토 면적의 70.8%가 농업 생산에 활용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핵심 산업
 - 우크라이나 GDP 대비 농업 비중 : (2018년) 12%
 -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 대비 농업 비중 : (2018년) 45%
- 비옥한 흑토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농산물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유럽, CIS, 북아프리카 등에 수출하기 좋은 환경
 - 해바라기씨유, 옥수수, 밀, 보리, 콩 등은 세계 수출량 Top 10에 들어감

2018년 우크라이나 주요 농산물의 전 세계 수출 순위 및 수출액

구분	수출액(백만 USD)	생산량 순위	수출 순위
해바라기씨유	4,113	1	1
옥수수	3,506	6	4
밀	3,004	8	5
유채	1,011	5	2
콩	831	8	6
보리	682	5	4

자료 : Ministry of Agrarian Policy and Food of Ukraine

- 2018년 기준 우크라이나 농산품의 대륙별 수출 비중은 유럽(37%), 동남아(17.5%), 중동(17.4%), 아프리카(12.4%), 아시아(9.8%), EAEU(4.9%) 등으로 나타남
 -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인도(18억 달러), 중국(11.7억 달러), 네덜란드(11.5억 달러), 스페인(10.4억 달러) 등이 있음
- 그러나 주로 원재료(곡물) 수출에 집중하고 있어, 식품 가공 분야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 또한 헥타르 당 농업 생산성도 미국 및 서유럽 국가와 비교할 시 낮은 수준
 - 기본적으로 타 국가 대비 농지 면적이 넓고 수확량 자체가 많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노력이 많지 않기 때문

철강 산업

- 철강 산업은 농업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
 - 2018년 기준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중 13위 차지
 - 세계 100대 철강 회사에 우크라이나의 Metinvest Holding LLC(42위)

2017·2018년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단위 : 백만 톤)

국가	2018년		2017년	
	순위	수출량	순위	수출량
전 세계		1,483.93		1,505.6
중국	1	928.3	1	870.9
인도	2	106.5	3	101.5
일본	3	10.43	2	104.7
미국	4	86.6	4	81.6
대한민국	5	72.5	6	71.0
러시아	6	71.7	5	71.5
독일	7	42.4	7	43.3
터키	8	37.3	8	37.5
브라질	9	34.9	9	34.5
이탈리아	10	24.5	10	24.1
이란	11	24.5	13	21.2
대만	12	23.2	11	22.4
우크라이나	13	21.1	12	21.4

자료 : World Steel in Figures 2019(World Steel Association)

-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철강 수출국 중 Top 10에 랭크

2018년 세계 주요 철강 수출국			2018년 CIS의 전 세계 지역별 수출량	
(단위 : 백만 톤)			(단위 : 백만 톤)	
국가	순위	수출량	수출 지역	수출량
중국	1	68.8	총수출	47.7
일본	2	35.8	역내 수출 제외	38.5
러시아	3	33.3	유럽연합(EU)	15.4
대한민국	4	30.1	기타 유럽 국가	7.2
EU	5	28.4	CIS	9.2
독일	6	26.0	NAFTA	4.3
터키	7	19.9	기타 미주 국가	0.8
이탈리아	8	18.2	아프리카	5.8
벨기에	9	18	중동	3.0
우크라이나	10	15.1	중국	0.1
프랑스	11	14.4	일본	0.0
브라질	12	13.9	기타 아시아 국가	1.7
			오세아니아	0.2

자료 : World Steel in Figures 2019(World Steel Association)

- 그러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내전으로 도네츠크주(州), 루간스크주(州)가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침
 - 주요 철광석 산지는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철광석을 제련하는 고품질의 석탄과 제련 공장이 주로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음
 - 동부지역 내전으로 인해 동부지역에 있는 철강 공장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철강제품 생산에 악영향을 끼침
-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량이 2014년 이후 감소하는 한편, 관련 제품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최근 경기 회복세와 함께 철강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이나, 동부지역 사태에 따른 피해 회복에는 시일이 필요할 전망

우크라이나의 철강 및 철강제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철강(HS 72)	8,077	7,248	8,667	9,940
철강제품(HS 73)	916	690	898	1,119

자료 : WTA, KITA

라. 정책 환경



UKRAINE 2020 STRATEGY(우크라이나 2020 전략)

- 2014년 말 우크라이나는 2020년 EU 가입을 최종 목표로 한 「우크라이나 2020 전략」 발표



자료 : Reforms.in.ua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 전략을 통해 62가지 개혁·프로그램을 확정, 이 중 8개 분야 개혁 및 2개 국가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키로 확정

우크라이나 정부의 우선 개혁 분야 및 정부 프로그램	
개혁 분야	① 반부패 개혁 및 정화(Anti-Corruption Reform&Lustration) ② 사법 개혁(Judicial Reform) ③ 지방분권화 및 국가 거버넌스 개혁(De-Centralization&State Governance Reform) ④ 규제 완화 및 기업가 정신 개발(Deregulation&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⑤ 법 집행 시스템 개혁(Reform of Law enforcement system) ⑥ 국가 안보 및 국방 시스템 개혁(Reform of the National security&Defense system) ⑦ 헬스케어 시스템 개혁(Healthcare system Reform) ⑧ 조세 개혁(Tax Reform)
정부 프로그램	① 에너지 독립성 프로그램(Energy Independence Program) ② 우크라이나에 대한 글로벌 프로모션(Global Promotion of Ukraine)

자료 : Reforms.in.ua

- 우크라이나 정부는 상기 8개 분야 개혁 및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핵심 성과 지표(KPI) 25가지를 상정
- 현재 EU 표준에 맞추기 위해 각종 법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020년 목표 우크라이나 정부의 25가지 핵심 성과 지표(KPI)

국가 발전	국가 안보	국가적 책임	국가적 자부심
☐ Ease of Doing Business Top 30위 ☐ 국가 신용등급 "BBB" 상향 조정 ☐ 글로벌 경쟁력 지수 Top 40위 ☐ GDP(PPP) \$16,000대 진입 ☐ FDI 순유입액 연간 80억 달러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 3% ☐ GDP 대비 총국가부채 비율 : 60% ☐ GDP 대비 에너지 집약도 : 0.20	☐ GDP 대비 국방 지출 : 3% ☐ 인구 1000명당 상비군 5.6명 ☐ 부패 인식 지수 Top 50위 ☐ 사법 당국 신뢰도 70% 달성 ☐ 경찰 신뢰도 70% 달성 ☐ 단일 에너지 공급원 의존율 30%로 감축	☐ 기대 수명 74세 ☐ 국가예산중 지방정부예산비중 65%로 향상 ☐ 고정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10명당 2명 ☐ 2개 외국어 가능 대학 졸업생 비중 75% ☐ PSA 평가 중등 교육 수준 Top 50위 ☐ 국가 복지 향상	☐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 : 90% ☐ 일본 올림픽 메달 수 : 35개 ☐ 글로벌 인재경쟁력 지수 Top 30위 ☐ 우크라이나 영화 개봉 수 : 20편

자료 : Reforms.in.ua

2

시장 분석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는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흐리브냐(UAH) 화폐 가치 하락은 바이어들의 신규 브랜드, 고가 제품 수입 의지를 크게 꺾는 계기가 됨
- 여전히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등은 우리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투자를 꺼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가. 시장 특성



‘유럽의 빵 바구니’라 불린 전통적인 농업 국가

-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 지대로 꼽히는 흑토 지대 보유
 - 북미의 프레리(Prairie), 아르헨티나 팜파스(Pampas)와 함께 세계 3대 곡창 지대로 분류
 -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44%, 경작 가능한 농지의 절반 이상이 흑토로 구성
 - 전 세계 흑토의 약 1/3이 우크라이나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세계적인 농업 수출대국으로 식량 수출규모만 연간 100억 달러 이상
 - 2018년 기준 우크라이나 농업 수출량은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며, 우크라이나 전체 GDP의 약 12%를 점유
 - 우크라이나산 해라바기씨유, 옥수수, 보리, 유채 등은 전 세계 수출 순위 Top 10에 포함될 정도로 높은 생산량을 자랑
- 글로벌 메이저 곡물회사가 이미 활발히 진출, 활동하고 있음
 - 1990년대부터 Cargill, ADN, Dunge, LD 등 글로벌 곡물회사 진출 활발



유라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 ①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Borderland 국가
 -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7개국과 인접
 - 남쪽으로는 흑해를 면하고 있어 발칸반도 및 터키, 지중해 연안국까지 쉽게 접근 가능
 - 유럽 주요 도시 대부분 항공편으로 3시간 내외 연결 가능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 지도



자료 : CIA Worldfactbook

② 유럽에서 2번째로 넓은 영토 및 7번째로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 높은 시장

- 국토 면적 603,800km²(크림반도 포함)에 이르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2번째로 넓은 영토 보유
- 인구 4400만으로 유럽에서 7번째로 많은 인구, 유럽 내 거대 내수시장 보유
- * 유럽 인구 순위 : 러시아(1위), 독일(2위), 영국(3위), 프랑스(4위), 이탈리아(5위), 스페인(6위), 우크라이나(7위)/CIA World Factbook 기준

③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주요 가스 노선이 우크라이나를 경유

- 러-우크라이나 관계 악화로 인해 2015년 1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대신 유럽으로부터 가스 수입 및 자체 가스 채취 확대
-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의 경유는 허용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는 2019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통한 대(對)유럽 가스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양국 간 추가 분쟁 소지 가능성 있음

나. 교역

우크라이나의 수입 동향

- 2018년 전체 수입액 : 576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4.29% 증가)
- 2019년 상반기 수입액 : 335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8.91% 증가)
 - 러시아와 갈등 이후 대(對)러시아 수입 금액은 지속 감소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단일국으로서는 최대 수입 대상국의 위치를 누리고 있음

우크라이나의 국가별 수입 현황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수입 시장 점유율(%)		
		2017	2018	2019.7	2017	2018	2019.7
	전체	50,472	57,682	33,531	100.00	100.00	100.00
1	중국	4,100	4,936	4,790	8.12	8.56	10.69
2	러시아	5,833	6,586	4,429	11.56	11.42	10.16
3	독일	3,982	4,542	3,529	7.89	7.87	7.68
4	폴란드	3,303	3,911	2,230	6.54	6.78	6.75
5	벨라루스	2,336	2,779	1,969	4.63	4.82	4.59
6	이탈리아	2,216	2,732	1,818	4.39	4.74	4.21
7	터키	2,077	2,411	1,069	4.12	4.18	4.17
8	미국	1,991	2,278	1,818	3.94	3.95	3.91
9	헝가리	1,293	1,626	701	2.56	2.82	2.57
10	네덜란드	1,205	1,267	430	2.39	2.20	2.54
26	대한민국	318	389	233	0.63	0.67	0.63

자료 : GTA

주 : 국가별 수입 순위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우크라이나 수출입 금액은 우크라이나 통계청 자료와 한국무역협회 자료가 상이함

다. 투자

우크라이나 투자 환경

- 우크라이나는 정치·군사적 불안요소가 상존,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환경에 악영향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 해결이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의 주요 요소이나, 오랜 동·서간 지역 갈등으로 인하여 국가 통합에는 상당 시일 소요 전망
 - 새로 집권한 우크라이나 정권이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나, 정경유착이 관행화되어 있어 부패의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우크라이나 정치인 대부분은 정치 활동과 함께 기업 활동을 동시에 하는 올리가르히로(재벌),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웠던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최대 제과업체 Roshen 소유
-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9’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총 190개국 중 71위를 차지

- 이는 주변국에 위치한 구소련 국가인 조지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키르기스스탄보다 낮은 순위

Doing Business 2019 주요 국가별 순위

국 가	순위(2018년)	순위(2019년)
뉴질랜드	1	1
싱가포르	2	2
덴마크	3	3
대한민국	4	5
홍콩	5	4
조지아	9	6
러시아	35	31
카자흐스탄	36	28
벨라루스	38	37
몰도바	44	47
아제르바이잔	57	25
우즈베키스탄	74	76
우크라이나	76	71
키르기스스탄	77	70

자료 : Worldbank Doing Business

- 세무 항목별 평가에서는 전기공급(135위), 소액투자자보호(72위), 통관행정(78위), 법적분쟁 해결(57위), 퇴출(145위)에서 낮은 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대(對)우크라이나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대(對)우크라이나 주요 투자국은 키프로스,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등이 있음
 - 주로 본국에서 조세 피난처로 빠져나간 자금이 소위 ‘라운드 트리핑(Round-Tripping)’ 과정을 통해 주로 우크라이나 금융·보험 산업으로 재투자

(참고) 2018년 우크라이나 산업 분야별 FDI 비중

- 금융·보험(26.42%), 제조(20.06%), 도소매(13.61%), 부동산(10.03%), ICT(5.53%), 광업(4.06%) 등

2018년 국가별 대(對)우크라이나 FDI 금액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금액	비중
전체	32,291.9	100.0
키프로스	8,879	27.5
네덜란드	7,060	21.9
영국	1,955	6.0
독일	1,668	5.1
스위스	1,540	4.7
버진아일랜드	1,311	4.0
러시아	1,008	3.1
오스트리아	1,005	3.1
프랑스	636	1.9
폴란드	593	1.8
룩셈부르크	526	1.6
헝가리	500	1.5
미국	488	1.5
기타 국가	5,122	16.3

2017년 국가별 대(對)우크라이나 FDI 금액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금액	비중
전체	31,230.3	100.0
키프로스	8,932.7	28.6
네덜란드	6,395.0	20.4
영국	1,944.4	6.2
독일	1,682.9	5.3
스위스	1,515.9	4.8
버진아일랜드	1,358.4	4.3
오스트리아	1,038.8	3.3
러시아	797.2	2.5
프랑스	723.4	2.3
폴란드	571.3	1.8
벨리즈	532.3	1.6
미국	517.4	1.6
룩셈부르크	515.8	1.6
기타 국가	4,704	15.7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청

주 : 크림반도 및 동부 분쟁지역 제외

○ 주요국별 진출 전략

- (EU) 대(對)러시아 견제 수단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각종 자금 지원

○ 유로 기금 지원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및 유럽투자은행(EIB), NIF(Neighbourhood Investment Facility)를 통한 각종 프로젝트 지원

- EBRD의 대(對)우크라이나 누적 투자액은 총 136억 달러로 432개 프로젝트 추진

-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 보유하고 있는 기존 비즈니스 유지 및 축소

○ 러-우크라이나 간 경제·무역 제재로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FDI는 감소 추세(2014년 35억 달러 ⇒ 2018년 10억 달러로 감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가스, 은행, 통신, 제조업 등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

* 주요 활동 기업 : Sberbank, Regal Petroleum, Kyivstar, MTS, Donetsk Metallurgical Plant, Carlo Pazolini, O'STIN 등

- (일본) 우크라이나를 원조 대상 국가로 인식, 각종 지원책 제공

○ 2018년 연말 기준 일본의 대(對)우크라이나 직접투자액(FDI)은 1.4억 달러 수준으로 많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원조 대상 국가로 인식

- 2018년 2월 기준, 차관(16.9억 달러), 무상원조(980백만 달러), 재정원조(580만 달러), 체르노빌 방사능 확산 방지 원조(219백만 달러), 녹색투자제도(GIS) 등으로 총 31억 달러 지원(출처 : 주우크라이나 일본 대사관)

- (중국) 유라시아 지역 내 러시아 영향력 견제, 중국인의 우크라이나 진출 크게 확대

-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 중앙아시아에서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
 - 유라시아 지역 내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과의 협력
- 중국기업인과 유학생들의 우크라이나 진출이 매우 활발
- 직접투자액(FDI)은 2018년 연말 기준 1.79억 달러로 많지는 않으나, 주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 항공, 농업, 인프라, IT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투자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주요 교역 현황

- 2011~2012년 우리나라의 대(對)우크라이나 수출은 10억 달러를 웃돌며 상승세
 - 우크라이나·폴란드에서 공동 개최 EURO 2012에 따른 반사 이익
 - 또한 EURO 2012에 사용될 도시 간 고속열차 납품 프로젝트를 우리기업(현대로템, 현대중합상사)이 수주하면서 대(對)우크라이나 수출이 크게 증가
- 2012년도 EURO 개최 및 총선 등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 확대 후, 2012년 3·4분기 GDP 성장률은 각각 -1.3%, -2.7%로 연이어 마이너스 성장세 기록
- 이로 인해 2013년 대(對)우크라이나 수출은 45% 감소한 6억 3500만 달러 기록
 - 고속열차 수출 이전인 2010년 총 수출액 7억 1400만 달러보다 못 미치는 결과

한국-우크라이나 수출입 통계

(단위 :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2014년	338,809	-46.6	758,582	69.3	-419,773
2015년	194,367	-42.6	661,468	-12.8	-467,101
2016년	222,247	14.3	472,357	-28.6	-250,111
2017년	258,560	16.3	539,313	14.2	-280,754
2018년	341,333	32	386,688	-28.3	-45,355
2019년(1-8월)	231,345	-3.0	327,919	47.2	-96,574

자료 : KITA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동부지역 내전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 경제성장률 급감
⇒ 우리나라의 대(對)우크라이나 수출입 모두 감소
- 2016년 들어 우크라이나 경제가 회복세를 띄면서 현재까지 한-우크라이나 수출입 모두 점차 회복되는 모습
 -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

한-우크라이나 주요 교역품목

- (수출) 우리나라의 대(對)우크라이나 수출품목은 주로 자동차, 철강판, 합성수지, 고무제품, 자동차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10대 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번	MTI	품목	2018년	2019년(1 ~ 8월)	
			금액	금액	증감률
		전체	341,333	231,345	-3.0
1	741	자동차	64,986	32,900	-28.7
2	320	고무제품	23,608	23,287	26.9
3	613	철강판	27,205	22,346	-4.7
4	227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4,220	20,070	151.7
5	214	합성수지	29,386	19,606	-11.1
6	742	자동차부품	22,746	13,144	-8.7
7	310	플라스틱 제품	15,274	10,775	-1.5
8	841	전력용 기기	7,191	8,233	16.5
9	733	의료용 기기	9,230	6,565	60.2
10	725	건설광산기계	16,430	6,565	-46.7

자료 : KITA

- (수입) 우리나라의 대(對)우크라이나 수입품목은 곡물, 철광과 같은 원부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 비중이 곡물에 집중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10대 수입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번	MTI	품목	2018년	2019년(1 ~ 8월)	
			금액	금액	증감률
		전체	386,688	327,919	47.2
1	013	식물성 물질(곡물 등)	186,803	159,019	63.4
2	112	철광	91,073	76,055	43.1
3	618	합금철선철 및 고철	35,466	27,062	9.1
4	011	곡실류	225	13,149	9,022.4
5	031	목재류	23,613	12,173	-19.9
6	629	기타 비철 금속제품	1,690	7,596	547.5
7	711	원동기 및 펌프	4,782	6,476	408.6
8	612	선재봉강 및 철근	2,700	3,684	75.6
9	813	컴퓨터	3,046	2,922	36.7
10	825	난방 및 전열기기	3,906	2,591	7.0

자료 : KITA

나. 투자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투자 현황

- 누적 신고 건수 : 총 78건(2019년 10월 10일 기준)
- 누적 신고 금액 : 366,666천 달러(2019년 10월 10일 기준)

- 누적 투자 금액 : 307,751천 달러(2019년 10월 10일 기준)
- 주요 진출 업종 : 도·소매업, 제조업, 운수업 등

최근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

-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주재 우리기업들은 철수 혹은 규모 축소
 - 현재 우크라이나 주재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 자동차, 포스코대우, 현대종합상사, GS건설, 한국타이어, 에코비스, 오스템임플란트 등 10개사 내외
- 2016년 이후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부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소비재 시장 진출 문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은 없음
- 정정 불안에 따른 국가 리스크가 높아 아직까지 우리기업 입장에서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양국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전력 분야 프로젝트 추진 중

- 한-우크라이나 전력기업(기관) 간 스마트그리드 협력 사업
 - 우크라이나 흐멜니츠키주(州) 내 AMI(지능형 계량기) 시범사업 추진
- WB 산하 관계자(금융조달), 우크라이나 에너지 석탄부 관계자(우크라이나 정부보증 및 사업내용 설명), 전기설비 인증기관 면담
 - 국내 AMI 제조기업과 우크라이나기업이 협력하는 형태로 인증 취득 추진

Ⅲ. 진출전략

- 우크라이나는 군사, 정치 불안의 영향으로 시장 진입 리스크가 여전히 큰 시장이나, EU와의 협력 강화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기술력 및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우리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단순 무역 파트너가 아닌 상호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우크라이나 시장 SWOT 분석>

S

강점 (Strength)

- 한류 등의 영향으로 우리 기술력 및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
- 유럽, CIS와 모두 가까운 지리적 이점
- 유럽 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급 노동력

W

약점 (Weakness)

- 품질보다는 가격민감도가 높은 시장구조
- 외국인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미비
- 한-우크라이나 간 물리적 제약(시차, 거리) 상존
- 경제 악화, 화폐가치 폭락에 따른 구매력 약화

기회 (Opportunity)

- 전 산업에 걸쳐 시설 현대화에 대한 수요 다대
- 인구 4,400만 명의 유럽 내 거대 내수시장 보유
- 한국의 투자 혹은 JV에 대한 관심 다대
- 각종 개혁 정책으로 EU 표준화 진행 중

위험 (Threat)

- 예측 불가한 우크라이나의 대내외 정치, 외교, 안보 상황
- 러시아의 제재로 인해 육로를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에 애로
- 관료주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

O

T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한류, K-Beauty 활용 소비재 시장 공략 • 국내 기술력 활용 합작 투자 등 시장 선점 기회	유망산업 중심 시장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제3국을 통한 물류·가격경쟁력 확보 및 투자진출 기반구축	투자진출 기반 구축
WO 전략 (기회 포착)	• 방산·의료·농업 등 공공조달 진출 극대화 •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초기 시장 진출	미개척 시장 조기 선점
WT 전략 (위험 대응)	• 우크라이나 대내외 리스크에 관한 즉각적인 정보수집 및 유사 시 대응방안 마련	국가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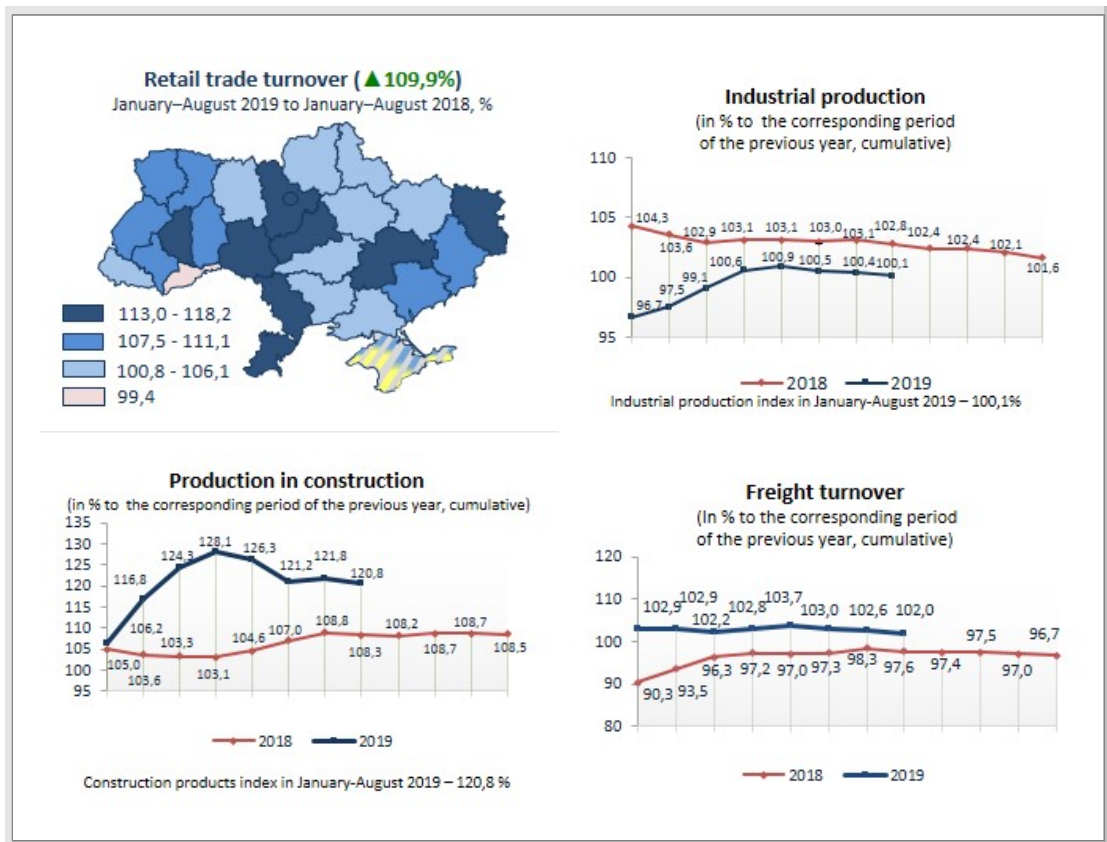
2-1. 우크라이나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구 4,400만 명, 유럽 내 큰 내수시장 보유국으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음
-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나,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과 함께 내수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6년 이후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 되면서 2019년에도 각종 산업 지표의 회복세가 지속



주 : 지표가 100 이상이면 성장, 100 이하이면 하락을 의미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청

- 산업생산을 제외한 리테일, 건설, 운송 분야의 산업 지표 회복세가 두드러짐
 - 소매유통 : 경제 회복과 함께 우크라이나인들의 소비도 함께 증가
 - 건설 : 2014년 이후 중단된 각종 건설 프로젝트 재개와 함께 대도시 중심으로 건설 붐이 일고 있음
 - 화물운송 : 2016년 대비 철도, 해상 운송이 다소 줄긴 하였으나 차량, 항공, 파이프라인 운송 증가
 - 산업생산 : 동부지역 분쟁에 따른 주요 탄광 및 제철공장에 대한 통제력 상실, 러-우크라이나 간 가스 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가 지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산업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우크라이나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회복세에 따른 현지 유통기업 활용 소비재 시장 진출
 - 소비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일반 소비재의 경우 우크라이나 온·오프라인 유통상이 벤더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 우크라이나의 경우 시장 정보 획득이 쉽지 않으므로 우크라이나 국내외 전시회, 무역 사절단 참가 등을 통해 바이어 콘택트 포인트 확보가 중요
- 진출 유망품목 : 화장품,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① 화장품

-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화장품 시장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세를 보임
- 최근 한국산 브랜드의 우크라이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가 높은 편
- 우크라이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한 점을 고려,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책정이 매우 중요

② 자동차부품

- 우리의 대(對)우크라이나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 회복과 함께 자동차부품 수요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유럽산과 경쟁이 불가피해, 바이어들이 신규 브랜드 론칭에 다소 소극적임
-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어와 공동 마케팅 활동 추진 혹은 바이어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③ 의료기기

-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의료 분야 개혁이 현재 진행 중으로, 국공립 병원 내 노후 장비 교체 수요가 앞으로 확대될 전망
- 또한 키예프 및 대도시 내 사립병원이 크게 늘면서 각종 의료장비 수요가 증가 추세

2-2. 우크라이나 핵심 산업 개혁에 따른 각종 프로젝트 참여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우크라이나는 2020년 EU 가입을 목표로 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 중
- 특히 우리의 앞선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향후 우리나라와 전력, 의료 분야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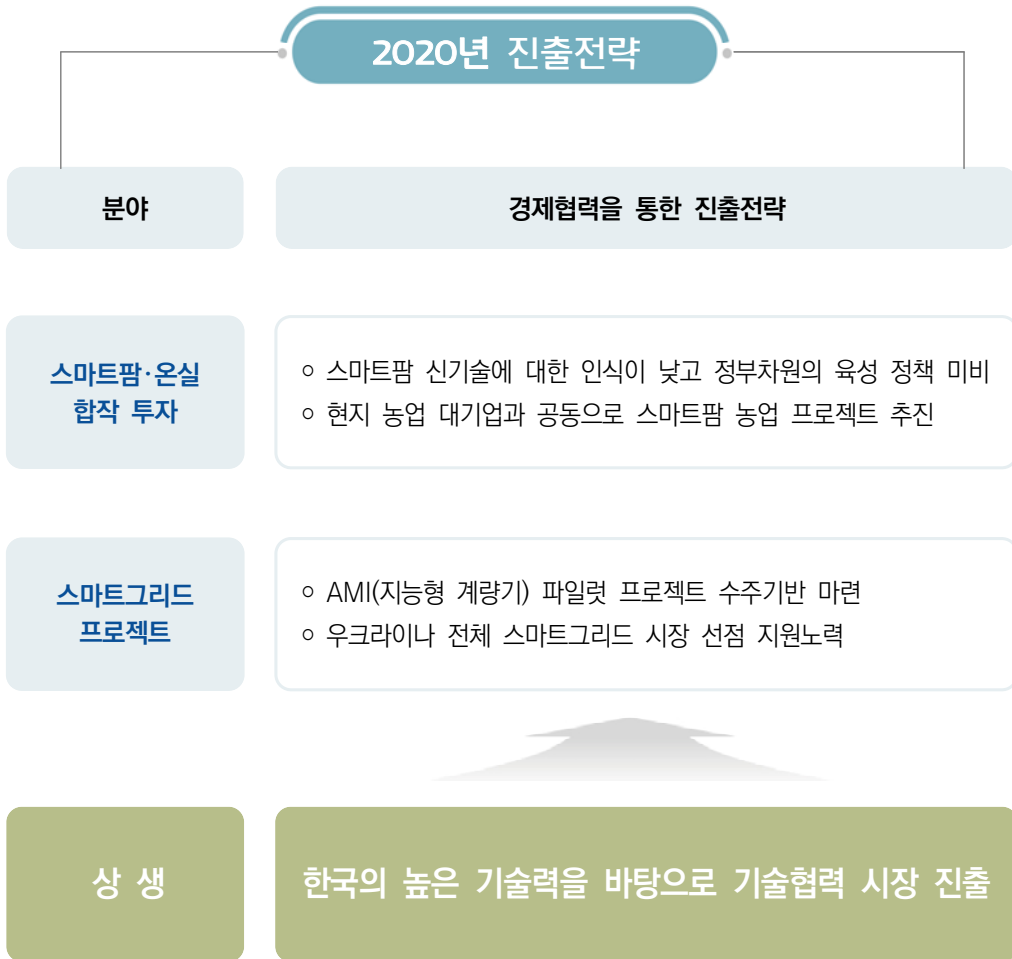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각종 산업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현대화에 대한 수요 증가
 - 특히 전력 시설, 의료 시설에 대한 현대화 수요가 높음
- (전력) 동부지역 사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석탄, 가스 등 전통 에너지 자원 수급에 문제를 겪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 확대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수력, 풍력, 태양력)를 전체 에너지의 20%까지 확대 추진
- 또한 화력발전소 절반 이상의 설비 및 송배전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 수요가 높으며,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송전 시설도 부족한 상황
- (의료) 고령화, 도시화 진전에 따른 의료설비 현대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혈관, 암, 신진 대사 검사 의료 장비도 크게 부족
-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분야 개혁이 완료될 경우 각 국공립 병원 자체적으로 의료기기 구매, 병원 리모델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현재는 각 국공립 병원에 필요한 물품을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 승인을 통해 정부에서 각 병원으로 공급하는 형태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전력) 우리 국영 전력회사-우크라이나 국영 전력회사 간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 현대화 지원 필요
 - 양국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전력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수출이 가능
- (의료) 병원 현대화 및 운영, 의료시설 개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를 희망하는 국공립 병원이 늘고 있음
 - 한국의 병원 정보화 경험 및 기술력을 알리는 한-우크라이나 병원 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

3 **한-우크라이나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스마트팜·온실 신기술 농업 프로젝트 추진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우크라이나 스마트팜·온실 농업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
 - 스마트 농법 활용 비율이 전체 농기업의 10% 수준, 스마트 온실 농업 활용 비율도 전체 농업 시장의 6%
- 농업 대기업 위주의 드론, 정밀농법, 온실 농법과 같은 AgriTech 활용
- 스마트팜·온실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해소
 - 우크라이나, 농업용 토지 매매 허용을 위한 제도 정비 착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각종 작물의 생산에 최적화된 흑토(전 세계 흑토의 약 28%가 위치)를 보유하고 있음
 - 북미의 프레리(Prairie), 아르헨티나 팜파스(Pampas)와 함께 세계 3대 곡창 지대로 분류
- 아직까지는 스마트팜·온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수요가 적음
 -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농업 생산은 가족 중심의 중·소작농이(3~5,000헥타르 규모) 주도, 신기술에 대한 인식과 도입 수요가 낮음
 - 아울러 농업을 연중 지속 사업이 아닌 계절성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으로 스마트 농법은 현지 대형 농업 기업 위주로 활용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농업 구조상 대기업 외 대규모 자금 동원 능력 결여
 - 정부 차원의 농업 보조금 지원 또한 대형 농업 기업에 집중되어 있음
- 우크라이나, 농업용 토지 매매 허용을 위한 제도 정비 착수
 - 우크라이나 정부, 최근 농업용 토지 매매 허용 법안 마련(2019년 9월)
 - 주요 내용은 농업용 토지를 우크라이나에 설립된 법인 등에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각료회의에서 통과
 - 정부의 법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그 동안 농업용 토지 매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던 외국기업에게 농업용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으로 전망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우크라이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한국기업에 적합한 협력가능 분야 분석, 관련 기업의 개별 또는 패키지형 진출 지원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활동 필요

① 단계 : 시장조사 및 협력관계 구축

- 포럼 개최(양국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기업 상담회 연계)
- 조사단 파견(온실재배, 스마트팜)
- 농업 전시회 개별기업 참가 지원

② 단계 : 협력사업 고도화 추진

- 주요 거점지역 사절단 파견(뿔타바, 미콜라예프, 헤르손 등)
-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사업 지원
- 농업 전시회 한국관 구성 참가

③ 단계 : 투자진출 지원

- 투자진출 로드쇼 개최
- 우크라이나 정부 투자 유치 사절단 방한 유치
- 현지 농업 대기업과 공동 합작 투자진출 지원

3-2. 스마트그리드 기술협력 프로젝트 수주지원 노력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우크라이나 송배전망 노후화로 인한 전력네트워크 효율성 문제
 - AMI 도입을 통한 운영비 및 인건비 삭감, 전력손실 최소화 등으로 해결 가능
- 우크라이나, 폴타바에네르고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 수주
 - 2024년까지 70만 사업장 및 민간주택에 향후 AMI 설치 계획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전력 수요) 산업용(42.8%) > 가정용(29.4%) > 일반용(12.6%) 순으로 집계
 - 우크라이나는 철강 생산 강국으로 금속 산업 관련 전력 수요가 특히 높음
 - 아울러 우크라이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전력 수요는 점차 증가할 전망
- 우크라이나 전력산업 최대 과제인 전력손실률(17%)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기술도입이 시급한 과제
 - 구소련 시대에 발전 및 송배전망 체계 확립, 송배전망 70% 이상 노후화에 따른 전력네트워크 관리 효율화 문제 급부상
 - 우크라이나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전체 송배전망 현대화 소요예산은 약 200조 원 (4조 UAH), 전력손실 축소를 위한 최신 기술도입(AMI, ESS 등 적정기술) 및 전력네트워크 관리에만 약 2조 원 소요 전망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측 협력 채널을 통해 관련 인증취득 지원
 - 우크라이나의 관료주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 미국기업 NES사의 경우, 미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취득에만 1년 이상 소요
- 대사관, KOTRA 지원 하에 우크라이나 정부보증 기관, 전력 기관 등 초청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현황 소개 및 관련 기술 시연
- 전력 및 관련 기자재 전시회 참가 지원
 -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 협력단 구성 및 파견

4

진출 시 유의사항

거래처 실존 여부 검증	정치적 리스크
■ (현황) - 무역사기를 목적으로 거래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일부 사례 접수 ■ (대응전략) ☞ 거래처 신용조사 필수(우크라이나 법무부 온라인 사업자 번호 조회, 사업체 실사 등)	■ (현황) -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지역 내전 등 러시아와의 정치·안보 리스크 잔존 ■ (대응전략) ☞ 상기 이슈들로 인하여 러시아에 관한 발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현지 상관습	채무 관련 법원 판결 미이행
■ (현황) - 7~8월 및 12월은 휴가 시즌으로 대부분의 관공서 등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빈번 ■ (대응전략) ☞ 바이어와 일정 조율, 출장 시 휴가철 가급적 제외	■ (현황) - 채무 관련 법원 판결 전에 채무자 계좌 동결, 자산 가압류 등 자산 매각·도피·은닉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절차 미비 -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후 2~5개월, 항소 가능 기간 및 항소심 심리 기간까지 추가적으로 약 2~3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사법 행정 역시 불투명 ■ (대응전략) ☞ 무역거래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사안에 대한 책임 명확화, 분쟁 시 해결방안 등 계약서에 명시 필수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6.5
화장품	수입액('18/백만 달러)	201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6
	선정사유	우크라이나 내 화장품 시장은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세. 우리 화장품에 관심 다대		
	시장동향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좋고 관심 다대		
	경쟁동향	EU, 미국산 화장품 유명		
	진출방안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유통업체 콘택트 포인트 확보 필요. 첫 면담에서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 요망		
품목명 2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수입액('18/백만 달러)	245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9
	선정사유	국공립 병원 의료시설 현대화 및 사립 병원 증가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확대		
	시장동향	북미, 유럽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 구매 선호		
	경쟁동향	북미, 유럽산 의료기기 진출 활발		
	진출방안	현재 의료기기 유통업체를 통해 국공립 병원 및 사립병원 납품 필요		
품목명 3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10%
자동차부품	수입액('18/백만 달러)	408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17
	선정사유	우크라이나 흐리브나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수입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이와 함께 자동차부품 수입도 증가 추세		
	시장동향	2019년 2분기 자동차부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중국, 독일, 러시아, 벨라루스, 체코 순으로 자동차부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진출방안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플랜트	선정사유	EBRD, EIB 등의 유럽 자금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인프라 및 발전 설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시장동향	우크라이나 정부의 에너지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최근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대체 에너지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경쟁동향	유럽 인근 국 및 중국, 터키 등지에서 활발히 진출
	진출방안	EBRD와 같은 유럽 자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주 혹은 지방 정부와 협력을 통한 신규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진출 가능
품목명 2		
물류	선정사유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CIS를 잇는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며 오데사, 일리체브스크, 유즈니 등 흑해에 인접한 항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와 교역이 편리
	시장동향	현재는 러-우크라이나 간 갈등으로 인해 러시아 및 CIS 국가로의 물류 환경이 좋지 않으나 관계 복원 시 물류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 또한 2014년 동부지역 사태 이후 우리 물류업체들의 우크라이나 활동이 저조해진 상황
	경쟁동향	Ukrposhta, Nova Poshta와 같은 로컬기업은 물론 다국적 물류업체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
	진출방안	러-우크라이나 관계 복원에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구분	주요 사업 명	일시/장소
식품 및 생활소비재	대형 유통망 방한 워크샵 연계 식품 및 생활소비재 진출 지원사업	2020.3. (잠정)/미정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시/장소
건설	Construction	Kyiv Build 2020	2020.2.18 ~ 20/키예프
에너지	Energy, Energy saving	Elcom Ukraine 2020	2020.5.19 ~ 22/키예프
농업	Agro	Agro 2020	2020.6.2 ~ 5/키예프
뷰티, 화장품	Cosmetics and cosmetology	InterCharm Ukraine 2020	2020.9.23 ~ 25/키예프

부록

對우크라이나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I. 한-우크라이나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우크라이나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 * 지리적으로 유럽, CIS, 북아프리카 등에 수출하기 좋은 환경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 지도



- 유럽에서 2번째로 넓은 영토에서 나오는 거대한 내수시장 보유
 - * 인구 4,400백 만, 유럽에서 7번째로 많은 인구 보유국
- 정부의 반부패 개혁 및 규제완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 2019년 우크라이나 Doing Business 순위 71위로, 전년 대비 5단계 상승
- 추후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현실화 시 EU를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

주요국의 대(對)우크라이나 협력 현황

- (EU) 2014년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EU 가입을 목표로 각종 법과 제도를 EU 표준에 맞추기 위해 각종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 운영되고 있던 기존 비즈니스 유지 및 확대
 - 우크라이나는 화학·철강, 곡물·농산가공품, 가스·석유 등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 크림반도 합병 이후 양국 간의 협력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러시아는 기존에 협력하던 분야 내에서는 아직까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
- (기타) 46개국과 FTA 체결, 터키 및 세르비아 등과도 체결 논의 중
 - 우크라이나의 대외 FTA 체결 현황 : EU(28개국), 캐나다, 몬테네그로, CIS(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조지아, 이스라엘 등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① [G2G] 양국 FTA 체결 등 통상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여타 주요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2018년 양국 간 교역액 : 7억 6천만 달러
- 우크라이나 경제구조상 한국과 상호 보완적 형태의 협력이 가능한 형태
 - － 우크라이나 우주 발사체 설계 및 제작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 7개국 중 하나
 - － 항공기 자체 설계 및 제작 기술력을 보유한 세계 8대 국가 중 하나
 - * 2003년 2월, 한-우크라이나 항공협정 체결, 2007년 8월 우주협력협정 체결
 - － 우크라이나는 부존 광물자원 대국으로서 티타늄 세계 매장량 25%, 원유 매장량 2억 톤, 천연 가스 매장량 1조m³ 이상으로 추정
-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이후 수출처 다변화에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선도적인 FTA 체결 필요성 증대

② [B2B] 농업 분야 협력

- 우크라이나는 각종 작물 생산에 최적화된 흑토를 보유해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 － 전 세계 흑토의 약 28% 보유, 국토의 약 70%가 경작지
- 농업이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의 약 45%, 전체 GDP의 약 12%를 차지
 - － 2018년 기준 곡물생산 7,500만 톤, 2025년까지 1억 톤 이상으로 확대 전망
- 세계 주요 농작물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장비가 부족하고 기존의 것들은 대부분 노후화 되어있음
 - － 우크라이나 통계청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농업 기계의 30% 이상이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짐
 - － 특히 농기계 중 콤파인 수확기, 트랙터, 자체 분사 분무기의 경우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기계 및 장비는 독일, 미국, 벨기에, 폴란드 등 유럽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스마트팜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
 - － 스마트 농업 활용 비율이 전체 농기업의 10% 수준이며, 자금 동원이 어려워 현지 농업 대기업 위주로만 활용되고 있음
 - － 우리기업의 온실 시스템 등에 대한 현지 관심은 다대하나, 대규모 농업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

- 주요 거점지역 위주로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 발굴 및 지원 가능성
 -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농업용 토지 매매 허용 법안이 통과 시 외국기업 역시 농업용 토지 매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영농기술 및 전문 인력 경험 전수를 통해 기반시설 구축, 공동 R&D 생산 방안 모색 가능성 증대

③ [B2B] 소비재 유통 : 화장품

- 우크라이나 경기 침체 시에도 화장품 소비 수요는 매년 성장
 -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좋고 수입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18년 우크라이나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은 553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
 - * 우크라이나 한국 화장품 수입액 : 2015년 133만 달러, 2016년 203만 달러, 2017년 284만 달러
 - 우크라이나는 밀수가 황행, 실제 한국산 화장품 수입 규모는 통계 수치 보다 클 것으로 추정
- 화장품 자체 생산 능력이 떨어져 전체 시장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
 -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이 대부분 진출
 - 한국산 중저가 제품(이니스프리, 미샤, 잇츠스킨 등)을 중심으로 진출 활발
- 지속적인 전시회 및 사절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시장 내 수요 중심 제품군 런칭
 - 우크라이나의 경기 회복세, 내수시장 크기,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판단
 -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우크라이나 최대 미용·뷰티 인터참 전시회 지원
 - 지속적인 국내 제품의 노출 및 홍보를 통해 시장 내 인지도 향상 및 바이어 인콰이어리 후속 지원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지문	과장	키예프무역관	380-50-446-0937	2fingerprint@kotra.or.kr

KOTRA자료 20-085

2020 국별 진출전략 **우크라이나**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한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31-6(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